

총체적 난국 KIA ‘가을’ 아닌 ‘내년’ 이 문제다

TIGERS 타이거즈 전망대

KIA 타이거즈가 가을이 아니라 내년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KIA는 지난 31일 KT와의 원정경기에서 6·7 끝내기 패를 당했다. 8회초 KIA가 김규성의 그라운드 홈런으로 역전에 성공했지만 마무리 정해영이 2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7번째 블론세이브와 함께 7패째를 기록했다. 3개의 안타로 3점을 내준 정해영의 피안타율은 0.307, 평균자책점은 4.17로 뛰어올랐다.

눈앞에서 승리를 날린 KIA는 지난주 3승 3패로 제자리걸음을 했고, ‘가을잔치’ 마지막선인 5위 삼성과 3.5경기 차로 멀어졌다.

시즌 결승전까지 KIA는 22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산술적으로 3.5경기 차를 뒤집을 수는 있지만

시즌 초반부터 시작된 부상·부진 많은 선수층에 변수 대처도 못해 ‘무조건적 신뢰’는 독이 된 상황
성영탁 외 마운드 영건 찾기 실패
감독·구단, 위기 탈출 시험대에

올 시즌 여정을 돌아보면 턱걸이 5강보다는 밑그림을 다시 그리는 게 더 중요해 보인다.

‘디펜딩 챔피언’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출발했던 올 시즌 KIA는 변수에 너무 취약했다.

일단 ‘부상’이 가장 큰 변수가 됐다. 지난해 우승을 위해 풀아웃을 밟느라 올 시즌 부상은 더 유난했다.

지난 시즌 MVP 김도영이 개막전부터 전력에서 이탈하는 등 무려 세 차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

고, 나성범, 김선빈, 위즈덤까지 동시에 빠지는 최악의 부상 상황이 발생했다.

부상 악재가 치명적이기는 했지만 사실 부상은 어쩔 수 없는 상수 같은 변수다. 모든 팀이 주축 선수들의 부상을 겪는다. KIA의 야수진 부상이 유난했다고는 하지만 지난 6월 ‘함평 타이거즈’ 멤버들로 뜨거운 질주를 한 것을 감안하면 줄부상이 올 시즌 부진의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부상과 부진이 겹친 마운드의 답 역시 시즌이 끝나가도록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우승을 이끈 ‘마당쇠’ 박도규가 팔꿈치 수술을 받으면서 일찍 시즌을 마무리했고, 선발 자리를 지켜왔던 윤영철도 수술을 앞두고 있다. 지난 시즌 전천후 활약을 해줬던 황동하는 황당한 교통사고로 자리를 비웠다.

장현식의 FA이적에 따른 공백을 조상우로 채우기는 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는 얻지 못했다.

지난 시즌과는 다른 전력으로 시즌을 꾸려가야

하는 상황이 됐지만 KIA는 이에 대한 대처에 취약했다.

위기를 관리하고 다양한 변수에 맞춰 최상의 전력을 만들어내는 게 감독과 구단의 역할이지만, 이범호 감독과 구단은 예상치 못한 시즌 전개 과정에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했다.

부족한 전력을 채울 묘수가 부족했고,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전력풀도 마련하지 못했다.

근거 없는 무조건적인 믿음이 독이 되기도 했다. 외야수 이우성과 마무리 정해영은 계속된 부진에도 원래의 역할을 이어가다가 개인 성적은 물론 팀 성적에도 마이너스 요소가 대비됐다. 최악의 상황에 앞서 다음 경우의 수를 준비하고,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해야 했지만 반번히 ‘타이밍’을 놓친 KIA는 결국 8위 자리에서 9월을 맞게 됐다.

앞서 KIA는 미국 드라이브 라인, 트레드 애슬레틱스 등에 투수들을 파견하는 등 마운드에 전폭적인 투자를 했지만 선수층을 두텁게 하는 데 실패했

다. ‘미국 유학’을 통해 성장을 기대했던 선수들이 수술대에 오르거나 부진에 빠지는 등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야수진의 부상과 나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고, 성영탁이라는 ‘셋별’을 제외하고 마운드 새 얼굴 찾기도 실패했다. 올 시즌보다 내년 시즌이 더 암울한 이유다.

잔여 경기 일정 시작되면서 KIA는 새로운 한 주 한화-SSG-KT-NC를 만나게 된다.

2일 김도현을 선발로 내세워 대전에서 류현진을 상대하고 안방으로 돌아와 SSG(3·4일), KT(5일)와 리턴매치를 벌인다. 이어 창원으로 가 6·7일 NC와 원정 2연전을 갖는다.

쥐어짜서 만드는 승리가 아니라 내년과 미래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이범호 감독, 심재학 단장을 중심으로 한 구단의 전략과 능력을 확인하는 잔인한 9월이 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일 프랑스 파리의 아디다스 아레나에서 끝난 2025 세계개개인선수권대회에서 서승재(왼쪽)와 김원호가 남자복식 금메달을 확정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세영 울지마... ‘셔틀콕’ 남자복식 우승

세계배드민턴선수권

김원호-서승재 조 금·안세영 등

직전 세계배드민턴개개인선수권대회에서 전체 5개 종목 중 3개 종목을 석권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대표팀이 올해에는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배드민턴 대표팀은 1일 프랑스 파리의 아디다스 아레나에서 끝난 2025 세계개개인선수권대회에서 남자복식을 제패하고 여자 단식을 최종 3위로 마무리했다.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 김원호-서승재는 이날

새벽 열린 결승전에서 중국의 천보양-류이(11위)를 2-0(21-17 21-12)으로 제압해 세계 정상자의 자리를 굳건히 했다.

김원호와 서승재는 지난 1월, 7년 만에 다시 복식 조로 호흡을 맞추기 시작해 불과 7개월 만에 세계랭킹 1위에 올랐다.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 3개의 슈퍼 1000 시리즈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하며 4개 메이저 대회를 석권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아울러 서승재는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 쾌거도 거뒀다.

그는 2023년 덴마크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남자복식에서 강민혁(국군체육부대)과 함께 우승을 합작한 바 있다.

이번 대회에서 서승재는 두 번째 금빛 사냥에 성공하며, 박주봉-김문수, 김동문-하태권, 이용대-정재성으로 이어진 한국 남자복식의 ‘황금 계보’를 잇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 단식 종목에서 우승을 거두고 대회 2연패를 노렸던 안세영은 동메달로 만족해야 했다.

안세영은 여자단식 4강전에서 ‘천적’으로 꼽히는 중국의 천위페이(4위)에게 0-2(15-21 17-21)로 졌다. 이로써 안세영은 천위페이를 상대로 13승 14패를 기록하게 됐다.

남자복식 금메달과 여자단식 동메달 모두 값진 성과였지만, 금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따냈던 2023년 대회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당시에는 안세영이 여자단식에서, 서승재와 강민혁이 남자복식에서, 서승재와 채유정이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여자복식에서는 김소영과 공희용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해는 준결승에 진출한 선수가 안세영, 김원호, 서승재 단 3명뿐이었다.

세계개개인선수권은 개인전 5개 종목(남자단식, 여자단식,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을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지는 대회 중 최고 권위를 가진 국제 대회다.

/연합뉴스

김세영 LPGA 3위



김세영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FM 챔피언십(총상금 410만달러)을 3위로 마쳤다.

김세영은 1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턴의 보스턴 TPC(파72·653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로 2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 합계 17언더파 271타를 기록한 김세영은 단독 3위가 됐다.

김세영은 6월 솔라이트 클래식, 7월 스코틀랜드오픈에 이어 시즌 세 번째 3위를 기록했다. 그의 마지막 우승은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이다.

김세영은 3라운드까지 선두에 3타 뒤진 공동 2위에 올라 역전 우승을 기대하게 했지만 지난주 CPKC 여자오픈 공동 10위에 이어 2주 연속 ‘톱10’ 성적에 만족하게 됐다.

최근 6개 대회에서 4번 ‘톱10’에 들었다. 우승은 올해 투어 신인 미란다 왕(중국)이 차지했다.

최종 합계 20언더파 268타의 성적을 낸 왕은 우승 상금 61만5000달러(약 8억5000만원)를 받았다.

한국 선수로는 김세영 외에 임진희가 15언더파 273타로 로즈 장(미국)과 함께 공동 5위에 올랐다.

임진희는 보기 없이 버디만 10개를 몰아치며 10언더파 62타를 쳤다. 순위도 3라운드 30위권에서 5위로 경종 뛰었다. 최혜진과 박금강은 13언더파 275타, 공동 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한 유해란은 8언더파 280타를 치고 공동 28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광주시청 고승환, 도쿄세계육상선수권 뚝다

男 200m 출전·우상혁 등 8명 출전

광주시청 고승환이 2025도쿄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질주를 펼친다.

대한육상연맹이 1일 2025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출전할 한국 대표 선수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남자 200m의 고승환은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과 세단뛰기 유규민(이상 용인시청), 남자 35km 경보 김민규(국군체육부대), 20km 경보 최병광(삼성전자), 남자 마라톤 박민호(코오롱), 여자 마라톤 최경선(제천시청)·임예진(충주시청)과 도쿄로 간다.

고승환은 한국육상대표팀 중 유일하게 트랙에 오른다.

고승환은 기준기록(20초16)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세계랭킹포인트 순위에 따라 출전 자격을 얻었다.

지난 2023 부다페스트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이은 두 번째 세계 육상선수권 출전이다.

고승환은 지난 6월 전국육상선수권대회 남자 200m 준결승에서 20초45에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최고 기록(20초49)을 0.04초 앞당겼다. 기록 단축에 도전했던 고승환은 컨티넨탈투어 카자흐스탄 대회와 인도오픈 등 국제대회를 통해 포인트 쌓기에도 나섰다. 고승환은 지난 8월 열린 제34회 코사노프기념 세계컨티넨탈투어 브룬즈대회에서 20초90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하기도 했었다.

진전선수촌에서 세계무대를 준비하고 있던 고승환은 3일부터 5일까지 예전에서 열리는 제36회 KTFL 전국실업단체육상경기대회를 리허설 무대로 삼는다.

컨디션에 맞춰 대회 참가 여부를 결정, 세계선수권대회를 위한 마지막 점검을 할 계획이다.

2025도쿄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13일 막을 울리며 고승환이 출전하는 남자 200m 예선은 17일 진행된다.

이번 대표팀 명단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선수는 우상혁이다.

한국 육상 사상 처음으로 세계실내선수권 정상에 올랐던 우상혁은 도쿄에서 실외 세계선수권 우승이라는 한국 첫 기록에 도전한다.

2017년 런던대회를 통해 세계선수권에 데뷔한 우상혁은 2019년에는 정강이 부상 등의 여파로 대회가 열린 도하행 티켓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2m35를 뛰어오르면서 4위를 기록한 그는 2022 유진 대회에서는 은메달(2m35)을 목에 걸었다. 한국 육상 최초의 세계선수권 메달이었다.

우상혁은 2023년 부다페스트 대회에서는 2.29m의 기록으로 6위에 머물렀다. 세계적인 점퍼로 거듭난 우상혁은 이번 대회를 통해 첫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남자 높이뛰기 예선은 14일 오후 6시 40분 시작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제1회 농협중앙회장배 농업인 파크골프’ 광주·전남 예선

농협 광주·전남본부가 ‘제1회 농협중앙회장배 농업인 파크골프대회’ 광주·전남 예선전을 열고 농촌지역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본격 나섰다.

농협 광주·전남본부는 1일 광주 승촌파크골프장에서 이광일 전남본부장, 이현호 광주본부장과 새농민회·고향주부모임·농가주부모임 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농협중앙회장배 농업인 파크골프 광주·전남 예선전’을 개최

했다. 2일까지 치러지는 예선전에는 조합원 535명이 참가한다. 이들 간 경기 결과를 종합해 개인전 112명, 단체전 14팀이 본선에 올라간다.

오는 10월 14일까지 각 시·도별 예선을 거쳐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화순파크골프장에서 본선경기가 치러진다.

농협 광주·전남본부는 이날 예선전과 함께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 발대식도 개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